

문학 교재 구성을 위한 현대시 정전 연구*

윤여탁**

I. 머리말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교육되는 내용은 주로 교과서로 대표되는 교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물론 교육의 장면에는 학습 환경적인 요소인 교실이나 교재 등과 같은 물적 요인이나 교사와 학습자라는 인적 요인이, 똑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중에서 교육에 작용하는 물적인 요인의 하나로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고 구성하는 교재는, 교육 현장에서 특히 강조되어 왔다. 즉 교재에 어떤 내용이 수록되는냐에 따라 교육의 질적, 양적인 성과들이 결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동안 이 기준은 유동적인 인적 요인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런 교재에 수록되는 교육 제재의 객관적인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 편찬 지침'이라는 문서에 의하여 교재 선정의 기준은 개괄적으로 제시되는 열린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교과서에 수록될 작품의 선정에는 교재 편찬자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교육종합연구원에 지원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주관적인 의견이 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교재 구성에 대한 심의 역시 교육 정책 당국에 의하여 임명된 심의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교재의 편찬자나 심의자의 특성-연구 성향이나 이념적 성향이 교재 구성에 깊이 작용하게 된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본 연구는 바람직한 문학 교재 구성을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즉 정전(canon)¹⁾ 확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하여 정전 수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 문학 교재에 수록될 수 있는 정전 목록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동안 영문학을 중심으로 한 정전 논의가 소개되면서 정전의 해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아직까지 정전을 확정해 본 적이 없는 우리 문학 교육의 정전 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초 작업과 실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주로 현대시 제재를 중심으로 우리 문학사와 문학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정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 문학 교육 논의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원론적인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즉 과거나 현재의 국어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시 작품의 정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교재로 선정된 시 작품의 이데올로기성이나 이에 작용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문제 제기와 비판들이 있었다.²⁾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제

1) 정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고갑희(1998), 「정전의 탈신비화와 한국의 영문학 교육」, 김용권 외, 『영문학 교육과 연구의 문제들』, 한신문화사.

송 무(1997), 「문학교육의 '정전' 논의」, 『문학교육학』 창간호, 한국문학교육학회.

_____(1997), 『영문학에 대한 반성』, 민음사.

J. Guillory, 박찬부 역(1994), 「정전」, 프랭크 렌트리키아 외 공편,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303~325면.

2) 윤여탁(1990), 「시문학의 이데올로기와 교육」, 『국어교육』 71·72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최지현(1994), 「한국 현대시 교육의 담론분석-1940년대 저항시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많은 교과서, 예를 들면 국어, 문학, 독서 등은 물론 부교재적인 성격을 지닌 엔솔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재에 수록된 작품 선정의 기준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제 우리 문학 교육에서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판할 대상이 없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만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문학 교육에서 활용되는 교재들에 수록된 시 작품을 분석, 연구하여 정전 수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문학 교재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문학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또한 교수법 차원에서 이런 문학 작품 읽기를 세련화하는 한편, 읽기의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자 한다.

II. 문학 정전 구성의 원리

일반적으로 '정전(canon)'은 측정의 도구로 사용된 '갈대'나 '장대'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의 'kanon'에서 유래한 말로, 이후 'kanon'은 '규칙' 혹은 '법'이라는 제2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³⁾ 문학적으로는 주로 보존하거나 학습할 가치가 있는 텍스트나 작가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20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그 대표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전 목록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즉 고대에는 읽어야 할 신학의 경전을 중심으로 정전이라는 개념이 정리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 특히 문학 교육에서 학습할 대상인 고전(古典)을 선정하는 분야로 확대·발전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정전

정재찬(1996),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정순(1997), 「시 담론의 이데올로기성에 관한 연구—청록파 시의 담론 형식을 중심으로」, 서울대.

3) J. Guillory, 앞의 글, 303면.

논의는 주로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문학 텍스트의 목록이나 작가의 목록을 확정하는 부분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정전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학습의 방향이나 내용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전 목록의 중요성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정전이 구성되는 방식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전 자체가 갖는 속성과 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권력과 문화적 헤게모니를 가진 집단이 그들의 헤게모니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적 형식으로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의도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더 광범한 문화의 운동 법칙에 의해 구성된다는 견해가 있다.⁴⁾

이 중 첫 번째 관점은 정전적 텍스트가 지닌 고전적 가치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독자나 학습자들에게 모범으로 작용한다는 정전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정전으로 제시된 목록들은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사람들은 이를 학습하여 수용하는 한편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정전은 이를 학습하는 공동체의 공통 이념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그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실체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정전을 헤게모니 투쟁의 산물로 보는 견해는, 문학을 포함한 문화 현상이 정치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정전 목록은 어떤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실체로,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전은 항상 유동적인 것으로 권력 투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집단들(예를 들면, 흑인이나 노동자 계급, 여성 등)과의 헤게모니 투쟁의 결과에 따라 정전은 수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끝으로 문화 법칙에 의하여 정전이 구성된다는 견해는, 학습이 이

4) 송무, 앞의 책, 344면.

루어지는 학교나 문화 상품을 생산 보급하는 문화 자본이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문화 재생산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전 목록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학교나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구조에 작용하는 자본가의 이해가 작용하지만, 꼭 그런 이데올로기에 봉사하거나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전 확정 작업이나 목록 자체보다는 이런 텍스트를 선택하거나 해석·평가하여 학습하는 과정에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견해들은 모두가 정전이라는 실체를 인정하고, 이 정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원리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후자의 두 견해들은 전자의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정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작용하고 있다. 즉 정전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점과, 새로운 텍스트의 생산과 보급에 따라 정전 목록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정전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에서 생기는 헤게모니 투쟁의 산물이거나 그것이 유통되는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 법칙이 작용한 결과의 산물로 간주된다.

이처럼 정전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불변하는 권위를 지닌 성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터전을 삼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제반 현상과 힘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인종적인 차원에서 흑인, 계급적인 차원에서는 노동자나 농민, 성(gender)의 차원에서는 여성주의의 관점을 반영한 텍스트가 기존의 정전을 대체하거나 기존의 정전과 더불어 자리를 잡게 된다. 또한 현대 사회의 가벼움과 결탁한 상업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생산된 통속 문학이나 대중 문학이, 문학 교육과 문화 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존 정전의 권위를 위협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 문학 교육에서는 주로 저항시와 순수시 계열의 텍스트가 준정전⁵⁾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

5) 필자가 '준정전'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우리 문학 교육의 경우에는 정전

런 경향에 대한 비판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기존의 문학 교육에서 배제되었던 리얼리즘 계열의 시 텍스트는 물론 모더니즘 계열의 시 텍스트가 교육과 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다. 또한 세계 문학 속에서 우리 민족 문학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계 문학의 경향과 조류(예를 들면, 제3세계의 문학 등)를 학습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문학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론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 정전에 대한 도전을 통해 새롭게 작성된 정전 목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문학 교육에서도 누구나에게 인정되는 정전은 구성된 적은 없지만, 준정전의 성격을 지닌 텍스트들이 교육 현장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이자 실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글에서는 이런 준정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학 텍스트, 특히 시 텍스트의 목록과 성격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정전 확립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물론 이런 이 글에서는 객관적인 정전 목록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가능성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현상적으로 점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거듭 밝힌다.

Ⅲ.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시의 실제

이 부분에서는 현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시 텍스트의 목록과

확정을 위한 논의가 없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그동안 학교 교육이나 평가에서 대상이 되었던 텍스트들이 어느 정도는 정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런 명명을 하여 보았다. 아울러 이런 텍스트 목록 작성이나 교과서 편찬에는 각기 다른 시각차를 보이는 민족 문학론(진보적이거나 보수적, 좌파적이거나 우파적)의 관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문학 교육의 텍스트 선정에 작용하는 주된 논리는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목록을 조사하고, 그 경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런 정전 구성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6차 교육 과정에 의하여 편찬되어 교육되고 있는 18종의 『문학』 교과서⁶⁾를 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수록된 시 텍스트와 시인의 목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준정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교과서 수록 시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의 문학 정전 논의를 위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필자가 조사한 자료는 개화기 이후의 근·현대시와 현대시조이며, 자료의 분류는 작품⁷⁾이 발표된 연대보다는 시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만 전체적으로 수록 작품의 내용이나 현황을 파악할 때, 다른 교과서에 중복 수록된 작품들은 각각 개별 작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⁸⁾ 그러나 통계 처리상 여러 번 중복 수록된 작품을 한 편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런 작품에 대한 조사 내용도 아울러 밝혀 두었다.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개관

작품 수록된 시인의 수 : 64명

수록된 작품의 총수 : 136작품

6) 18종 『문학』 교과서의 대표 저자와 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권영민(지학사), 박갑수(지학사), 김봉균(지학사), 구인환(한샘출판사), 김윤식(한샘출판사), 김열규(두산 동아), 우한용(두산 동아), 오세영(천재교육), 박경신(금성출판사), 최동호(대한 교과서), 한계진(대한 교과서), 김대행(교학사), 김용직(대일도서), 남미영(동아서적), 김태준(민문고), 권오만(선영사), 윤병로(노벨문화사), 성기조(학문사).

7) 이 글에서 '작품'은 '텍스트'라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실체를 두고 지칭하는 개념으로 한정하여 쓰고자 한다. 따라서 수용 미학자들이 구분하는 작품과 텍스트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이 글에 한정하여 쓰고자 한다.

8) 정전의 목록에는 작품은 물론 시인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문학 교육에서 대표적인 정전에는 여러 교과서에 중복되어 수록되는 작품이나 여러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는 시인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권 이상의 교과서에 중복 수록된 작품의 수: 2권(17작품), 3권(15작품), 4권(9작품), 5권(6작품), 6권(3작품), 7권(3작품), 8권(1작품), 9권(2작품), 10권(1작품), 12권(2작품)

수록된 시인의 작품명

구상(초토의 시8-적군 묘지 앞에서)

김광균(외인촌, 추일 서정, 설야, 덧상, 와사등)

김광섭(성북동 비둘기, 산)

김규동(나비와 광장)

김기림(바다와 나비)

김남조(설일, 정념의 기)

김동환(국경의 밤)

김상옥(사향, 백자부, 옥저)

김소월(진달래꽃, 접동새, 산유화, 초혼,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으면, 먼 훗일, 가는 길)

김수영(눈, 풀)

김억(봄은 간다)

김영랑(북, 내 마음을 아실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오월, 들담에 속삭이는 햇발 같이)

김종삼(민간인)

김지하(타는 목마름으로)

김철영(애국가)

김춘수(꽃, 꽃을 위한 서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시1)

김현승(눈물, 아버지의 마음, 가을)

노천명(사슴)

박남수(아침 이미지, 종소리, 새)

박두진(향현, 도봉, 어서 너는 오너라, 청산도, 해)

박목월(산도화, 청노루, 불국사, 하관, 가정)

박봉우(휴전선)

박용래(연시)

박인환(목마와 숙녀,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박재삼(울음이 타는 강, 흥부 부부상, 밤바다에서, 추억에서)

백석(여승, 고향, 여우난 굶죽, 남신의주 유동 박시공방)

변영로(봄비)

서정주(자화상, 화사, 국화 옆에서, 추천사, 무등을 보며, 귀족도, 상리
과원, 동천, 질마재 신화)

신경림(갈대, 목계 장터, 농무)

신동엽(껍데기는 가라, 그의 행복을 기도 드리는)

신동집(오렌지)

신석정(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슬픈 구도, 작은 짐승, 꽃덤불)

심훈(그 날이 오면)

오상순(방랑의 마음)

유치환(일월, 생명의 서, 깃발, 바위, 울릉도)

윤동주(별헤는 밤, 또 다른 고향, 십자가, 참회록, 쉽게 씌어진 시)

이동주(강강술래)

이병기(난초)

이상(거울, 오감도 시 제1호, 가정)

이상화(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성부(벼)

이영도(신록)

이용악(낮은 집)

이육사(절정, 청포도, 꽃, 광야)

이장희(봄은 고양이로다)

이중원(동심가)

이필균(애국하는 노래)

이형기(폭포)

이호우(달밤, 살구꽃 핀 마을)

이회승(벽공)

작자 미상(독립군가, 심어사)

정완영(조국1)

정인보(자모사)

정지용(향수, 말, 유리창1, 고향, 비)

정한모(나비의 여행)

조병화(해마다 봄이 오면)

조지훈(봉황수, 승무, 풀잎 단장)

주요한(그 봄을 바라, 불놀이)

210 국어교육연구 제5집

천상병(귀천)

최남선(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돈성(애국가)

한용운(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황동규(기항지, 풍장1, 조그만 사랑 노래)

수록 작품수에 따른 시인 분포표

수록 작품수	시인명
9	서정주
7	김소월
6	김영랑
5	김광균, 박두진, 박목월, 유치환, 윤동주, 정지용
4	김춘수, 박재삼, 백석, 신석정, 이육사
3	김상옥, 김현승, 박남수, 신경림, 이상, 조지훈, 한용운, 황동규
2	김광섭, 김남조, 김수영, 박인환, 신동엽, 이상화, 이호우, 주요한
1	구상, 김규동, 김기림, 김동환, 김억, 김종삼, 김지하, 김철영, 노천명, 박봉우, 박용래, 변영로, 신동집, 심훈, 오상순, 이동주, 이병기, 이성부, 이영도, 이용악, 이장희, 이종원, 이필균, 이형기, 이희승, 정완영, 정인보, 정한모, 조병화, 천상병, 최남선, 최돈성, 작자 미상2

수록된 시인의 경향별 분류표⁹⁾

시인의 경향	시인명	시인의 수
순수시	구상, 김광섭, 김남조, 김동환, 김상옥, 김소월, 김억, 김영랑, 김춘수, 김현승, 노천명, 박두진, 박목월, 박용래, 박재삼, 변영로, 서정주, 신석정, 오상순, 유치환, 이동주, 이병기, 이영도, 이장희, 이형기, 이호우, 이희승, 정완영, 정인보, 정한모, 조병화, 조지훈, 주요한, 천상병, 황동규	35
리얼리즘시	김지하, 박봉우, 백석, 신경림, 신동엽, 이상화, 이성부, 이용악, 정지용	9
저항시	심훈, 윤동주, 이육사, 한용운	4
모더니즘시	김광균, 김규동, 김기림, 김수영, 김종삼, 박남수, 박인환, 신동집, 이상	9
개화기의 시	김철영, 이중원, 이필균, 최남선, 최돈성, 작자 미상 ²	7

중복 수록된 작품과 빈도수

수록 교과서수	중복 수록된 작품과 시인
2권	봄은 간다(김억), 진달래꽃(김소월), 접동새(김소월),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신석정), 자화상(서정주), 낡은 집(이용악), 도봉(박두진), 바위(유치환), 십자가(윤동주), 사향(김상옥), 껌데기는 가라(신동엽), 동천(서정주), 아침 이미지(박남수), 타는 목마름으로(김지하), 추억에서(박재삼), 종소리(박남수)

9) 시의 경향 분류 중에서 ‘저항시’와 ‘개화기의 시’는 다른 것과 위상이 맞지 않지만, 이런 시인과 작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하였다. 또 ‘순수시’의 개념은 포괄적인 범주로, 1920년대 낭만주의 시, 1930년대 순수서정시나 ‘생명파’와 ‘청록파’의 시, 1950년대 이후 시의 순수성을 추구한 정신주의 시 등을 두루 포함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시의 경향을 분류하는 개념 범주는 편의상일 뿐이며, 관점에 따라 다른 분류상의 개념이나 범주로 더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권	바다와 나비(김기림),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김영랑), 화사(서정주), 봉황수(조지훈), 생명의 서(유치환), 난초(이병기), 꽃덤불(신석정), 추천사(서정주), 꽃(김춘수), 눈(김수영), 울음이 타는 강(박재삼), 쉽게 씌어진 시(윤동주), 자모사(정인보), 목계 장터(신경림), 조국1(정완영)
4권	산유화(김소월), 초혼(김소월), 향수(정지용), 내 마음을 아실 이(김영랑), 그 날이 오면(심훈), 어서 오너라(박두진), 눈물(김현승)
5권	동심가(이중원), 애국하는 노래(이필균), 추일서정(김광균), 꽃을 위한 서시(김춘수), 목마와 숙녀(박인환), 초토의 시8-적군 묘지 앞에서(구상)
6권	불놀이(주요한), 님의 침묵(한용운), 참회록(윤동주)
7권	국경의 밤(김동환), 알 수 없어요(한용운), 유리창1(정지용)
8권	성북동 비둘기(김광섭)
9권	거울(이상), 절정(이육사)
10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12권	해에게서 소년에게(최남선), 풀(김수영)

이상의 조사 자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우리 시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되었던 시인들인 서정주, 김소월, 김영랑, 이상, 청록파, 유치환,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등과 그들의 작품이 여러 교과서에 두루 수록되고 있다.¹⁰⁾ 그리고 해금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지용, 백석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으며, 1950년대 이후에 주로 활동한 박재삼, 신경림, 황동규, 김수영, 신동엽 등과 그들의 작품이 다수 수록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는 문학 교육에서 순수시와 저항시

10) 중복 수록된 작품까지 고려하여 전체 빈도수를 조사하면, 김소월 15작품, 서정주 15작품, 한용운 14작품, 윤동주 13작품, 김영랑 12작품, 이육사 12작품, 이상, 11작품, 청록파 19작품, 유치환 8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가 여전히 준정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현대의 시 작품과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 계열의 시 작품이 1990년대 이후에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순수시와 저항시(또는 민족주의 시) 경향(이상을 제외하고)이 준정전 역할을 하고 있던 점에 대한 비판과 남·월북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해금 조치의 영향을 받아, 현재 학습되고 있는 제6차 교과서는 작품 수록의 폭을 시기적으로나 경향적인 측면에서 넓히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문학 교육에서 준정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목록은 작품에서나 시인의 측면에서 폭을 넓히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 시인의 대표 작품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북 수록된 고빈도 작품을 살펴보면, 김수영의 「풀」,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의 「거울」, 이육사의 「절정」,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와 「님의 침묵」, 정지용의 「유리창」, 김동환의 「국경의 밤」, 윤동주의 「참회록」, 주요한의 「불놀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서시」, 이육사의 「광야」 정도가 『문학』 교과서에서 고빈도 작품이 아니거나 전혀 수록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교과서의 수록 여부와 교육적인 위계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¹¹⁾

끝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시인이나 중요한 텍스트들이 주로 근대라고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앞에서

11) 그 이유는 「서시」의 경우에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의 길잡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작품이며, 「진달래꽃」과 「광야」는 국정 교과서에 수록된 시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국어』에 수록된 시는 다음과 같다.

『국어』(상): 「진달래꽃」(김소월), 「광야」(이육사), 「성북동 비둘기」(김광섭)

『국어』(하): 「설일」(김남조), 「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의 묘에」(한용운)

중학교에 수록된 시 작품에 대해서는 윤여탁(1997), 「현대시 제재의 교육적 위계(位階)에 대한 연구」(『국어교육』 95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9면)를 참고할 것.

이들 텍스트들이 발표된 시기를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수록된 시인의 작품명’이라는 분석 항목에서 이런 특성은 쉽게 확인된다. 이는 우리 문학 교육의 현장에서는 동시대성과는 거리가 있는 과거의 텍스트를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텍스트들이 준정전의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바람직한 정전 구성의 방향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 현장에서 교수·학습의 내용을 결정하는 텍스트는 거의 모든 국면에 작용한다. 우선적으로 대상 텍스트가 학습의 내용과 실재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교재에 수록되는 텍스트를 지칭하는 정전이라는 개념은 문학 교육은 물론 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정전으로 채택된 텍스트의 내용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전 구성이 교육의 모든 국면을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정전 구성 문제 외에도, 학습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재를 결정하는 데에는 교수·학습의 변인들, 즉 교육 과정이나 평가와 같은 교육 제도는 물론 교사의 학습 방법이나 내용인지도, 교사의 이데올로기 등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은 다른 어떤 변인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영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정전 비판 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우리 문학 교육에서도 정전 구성을 둘러싸고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영문학에서의 정전 논의와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정전보다는 정전의 기능을 하는 준정전만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영문학이 처한 상황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기존 정전에 대하여 비판적인 비판 그룹, 즉 민족이나 계급, 성의 차이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다.¹²⁾ 적어도 영문학이 직면했던 정도는 아니며, 이런 점

은 보통 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베풀었지고 있음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정전 논의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학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수용하여 정전 목록을 구성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여건에 제대로 부응하는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교육이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는 주체적 인간을 양성하는 역할도 동시에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¹²⁾ 그래서 정전 구성에 작용할 수 있는 편협된 시각을 극복할 수 있는 열린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다양한 가능성과 비판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닌 정전 개념을 기초로 하는 정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존재하지도 않은 정전을 비판하는 비판 이론을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전은 비판의 대상 이전에 학습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의 문학 교육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정전 텍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으며, 이런 점들은 새로운 정전 구성에서도 바르게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혁이나 혁명만이 대안일 수 없으며, 기존에 정전의 역할을 했던 것들의 정전성이 아직도 유효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민족 문학과 문화의 유산을 두루 포괄하면서, 우리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정전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런 점은 주로 고전 교육이 이미 죽은 과거의 유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과도 관련이 있다.

12) 물론 이런 점을 확일적으로 말할 수만은 없다. 민족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사회를 벗어나면서 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계급이나 계층의 문제도 생기고 있다.

13) 김대행(1997), 『영국의 문학교육』, 『국어교육연구』 제4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48~49면.

따라서 민족 문화의 유산이 현대 사회에도 유의미한 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대적인 효용성도 아울러 확보할 수 있도록 정전을 구성하여야 한다.¹⁴⁾ 또한 이런 정전을 교육함으로써 학습자들을 포함한 정전 수용자들이 자신은 물론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정전을 구성할 때, 정전의 위계화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¹⁵⁾ 즉 교육하여야 하는 대상을 결정하는 교과서에 수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전 목록이, 학습의 단계를 고려한 위계성을 지녀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그동안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 구성이 이런 위계화의 문제에 많은 문제점¹⁶⁾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교육 과정에 맞는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정전 목록을 구성하여야 한다. 정전 목록을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정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문학 교육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전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중의(衆意)를 모아야 한다. 비판 이론 일반이 그런 것처럼 비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을 통하여 비판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했던 과거와 처하고 있는 현재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정전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는 정전과 그 교육의 효과는 물론 학습 단계의 위계를 같이 고려한 정전이 구성되어야 한다.

더구나 문학 교육이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제한적인 범주를 넘어서, 언어 문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런 원리에 입각하여 효과

14) 정전 구성도 중요하지만, 학습 방법 역시 중요하다. 즉 어떤 문학 교육의 관점과 방법론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전은 과거적이 아니라 현재적인 즉 동시대적인 효용성을 지닌 텍스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김대행, 앞의 글, 44~45면.

16) 윤여탁, 「현대시 제재의 교육적 위계(位階)에 대한 연구」 참조.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체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문학 교육의 내용이자 대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학 정전의 개념과 범주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전 목록이 구성되어 효과적인 문학 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런 정전을 둘러싼 여러 문제와 정전 구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 보았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은 문학 교육 특히 시 교육에서 정전적 위치를 차지하는 텍스트의 실체를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문학 교육에서 준정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목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목록을 구성할 때 고려할 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제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전 목록에 수용될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이런 정전 구성에는 우리 시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시인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폭넓게 반영하여야 한다. 즉 문학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전 구성의 원칙을 수립하여, 어느 한 쪽만의 편협된 시각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문학 정전의 구성이 우리 문학사의 일반적인 흐름이나 평가와는 달리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학적 측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 문학사의 연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될 때, 우리 문학 교육의 정전 목록 역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목록에 포함되었던 순수시나 저항시 중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김소월, 한용운, 김영랑, 청록파, 서정주, 유치환, 이육사, 운동주는 물론 정지용, 김춘수, 박재삼, 박용래 등과 같은 시인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썼던

이상, 박남수, 박인환, 김경린, 김수영, 1960년대 ‘현대시’ 동인 등이나 리얼리즘 계열의 시를 썼던 임화, 이용악, 백석, 해방기 신진 시인, 신동엽, 1970년대 민중 시인인 고은, 신경림, 김지하 등이 포괄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은 텍스트는 물론 우리 학습자들이 현재 접하고 있는 동시대적인 텍스트나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텍스트를 대항 정전 목록¹⁷⁾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주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의 제한성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현실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텍스트 목록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이런 목록은 정전적인 텍스트와의 대결하는 측면을 보여주거나, 정전적인 텍스트가 보이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항 정전에는 동시대에 인기를 끌고 있는 텍스트와 그 생산자를 적극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발표된 텍스트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여, 황지우, 김정환, 장정일, 도종환, 이성복과 같은 동시대의 인기 있는 시인이나 류시화, 용혜원, 원태연, 이정하, 이폴잎 등과 같은 소위 ‘키치’ 시인¹⁸⁾의 시 텍스트가 대항 정전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의 제재로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시 텍스트는 학생들이 정전적인 시 텍스트만 배우는 교실 밖에서는 더욱 친숙하게 접하여 자기 생활화하고 있는 것들로, 이런 텍스트

17) 이 개념은 필자가 대중 문학과 동시대 문학을 문학 교육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생각한 것이다. 대항 문화, 대항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비판 문화론에서 설명되고 있는 개념과 관련하여, ‘대항 정전’은 기존의 정전에 비판적인 관점을 보이는 텍스트로 그 범주를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전을 보완하거나 대치하는 기능을 가진 ‘대안 정전(alternative canon)’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안 정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임상훈, 「테크놀로지와 영문학 교육」, 김용권 외, 앞의 책, 236면.

18) 김남희(1997), 「현대시 수용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고등학생 독자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23~35면.

들을 바람직한 인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이라는 더 넓은 틀 속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끝으로 정전 목록은 권위를 자랑하는 종교적인 경전 목록이 아니라 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항상 새롭게 수정될 수 있으며,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변해야 한다. 더구나 이런 수정이 기존 정전을 대체하는 또다른 정전으로 보거나 기존의 정전에 가중되는 짐처럼 새로 첨가되는 것이 정적(靜的)인 것은 아니다. 학습자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같이 작용하는 역동적(力動的)인 텍스트의 목록이다. 또한 이런 정전은 우리의 문학 학습에 작용하는 자체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 구인환 외(1988), 『문학교육론』, 삼지원,
김남희(1997), 「현대시 수용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고등학생 독자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 출판부.
_____(1996), 「국어과 교육 과정 분석과 수준별 교육 과정 개발」, 『교육 과정 연구』 14, 한국 교육학회 교육 과정 연구회.
_____(1997), 「영국의 문학교육」, 『국어교육연구』 4호,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김용권 외(1998), 『영문학 교육과 연구의 문제들』, 한신문화사.
김은전(1979), 「국어교육과 문학교육」, 『사대논총』 19, 서울대 사대.
김중신(1995), 『소설감상방법론 연구』, 서울대 출판부.
김창원(1995),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 출판부.
노명완(1988), 『국어교육론』, 한샘.
노명완 외(1988), 『국어과 교육론』, 갑을.
박봉배 외(1987), 『광복 40년의 교과서-시』, 나라말쓰미.
박인기(1996),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이론』, 서울대 출판부.
송 무(1997), 「문학교육의 '정전' 논의」, 『문학교육학』 창간호, 한국문학교육학회.
_____(1997), 『영문학에 대한 반성』, 민음사.
우한용 외(1993), 『소설교육론』, 평민사.
윤여탁(1996), 『시 교육론-시의 소통 구조와 감상』, 태학사.
_____(1997), 「현대시 제재의 교육적 위계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95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_____(1998), 『시 교육론2-방법론 성찰과 전통의 문제』, 서울대 출판부.
이대규(1988), 「교과로서의 문학의 구조」, 서울대 대학원.
이용주 외(1993), 「국어교육학의 연구와 교육의 구조」, 『사대논총』 46집, 서울대.
정재찬(1996),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정정순(1997), 「시 담론의 이데올로기성에 관한 연구-청록파 시의 담론 형식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 정현선(1995), 「모더니즘시의 문화교육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 최미숙(1993), 「시 텍스트 해석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 최지현(1994), 「한국 현대시 교육의 담론 분석-1940년대 ‘저항시’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 한국교육개발원 세미나(1997), 『21세기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수준별 교육과정』.
- Bernstein, B.(1990), *The Structuring of Pedagogic Discourse-Class, code and control*, Routledge.
- Fiske, John(1989), “Cultural Studies and the Culture of Everyday Life”,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Boston Unwin Hyman.
- Fowler, R.(1981), *Literature as Social Discourse*, London: Batsford Academic and Education LTD.
- Gribble, J., 나병철 역(1987), 『문학교육론』, 문예출판사.
- Guillory, J., 박찬부 역(1994), 「정전」, 프랭크 란트리키아 외 공편,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 Hills, P. J., 장상호 역(1987), 『교수, 학습 그리고 의사소통』, 교육과학사.
- Hirschkop Ken(ed.)(1989), *Bakhtin and Cultural Theory*, Manchester Univ. Press.
- Scholes, R.(1985), *Textual Power: Literary Theory and the Teaching of English*, New Haven: Yale Univ. Press.
- Stenhouse, M.(1975), *An Introduction to Curriculum Research and Development*, London: Heinemann.
- Thompson, Linda(ed.)(1996), *The Teaching of Poetry-European Perspectives*, London: Cassell.
- White, R. V.(1988), *The ELT Curriculum*, Basil Blackwell.